

정규교과에서 통합논술 가르치기*

최인영**

<차 례>

- I. 여는 말
- II. 우리나라 논술 교육의 문제점
- III. 논술을 가르치는 바른 길 찾기
- IV. 정규 수업을 활용한 논술 지도 사례
- V. 맺는 말

I. 여는 말

옛날, 어떤 젊은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길을 가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누가 물었다.

늙은이 : 아니, 젊은이! 자네는 어디를 그렇게 열심히 가고 있나?

젊은이 : 예, 서울에 가는 길입니다.

늙은이 : 아니, 서울은 저기 북쪽으로 가야하는데, 자네는 왜 남쪽으로 가고 있나?

젊은이 : 예, 열심히만 가면 서울이 나오겠죠.

* 본 연구는 국어교육학회 제36회 학술발표대회(2007. 4. 21)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한 것임.

** 경희고등학교 국어 교사, naramal@hanmail.net, cafe.daum.net/merchy

지금 우리나라에는 논술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모두들 논술 때문에 야단이다. 너도 나도 정말로 열심히 달리고 있다. 그런데 그 방향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다. 우리가 달리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혹시 달리면 달릴수록 서울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따져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국어교육학회처럼 권위 있는 모임에서 이름도 없는 학사 출신의 고등학교 현장 교사를 부른 까닭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기 때문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논술이 가야 할 바른 길’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깊고 높은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게 미루고, 학교 현장의 모습을 그리는 데 무게를 두면서 조심스레 이야기를 풀어나가려 한다.

II. 우리나라 논술 교육의 문제점

1. 논술을 가르치는 본디 뜻

첫째,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려는 것이다. 논술은 단순한 지식을 외워서 쓰는 단답형 시험과는 다르다. 주어진 문제에 대해 깊고 넓고 높게 생각을 펼쳐야 한다. 따라서 논술로써 학생들이 스스로의 눈으로 읽고, 스스로의 귀로 듣고, 스스로의 머리로 생각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둘째, 머릿속의 생각을 글로 드러내는 힘을 키우려는 것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자신이 하는 일을 글로 써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라 한다. 우리 학생들이 앞날을 살아가려면 이런 힘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셋째, 논술에서 바라는 인간상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다.

넷째, 논술을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앞날을 ‘대화가 가능한 사회’ 또는 ‘토론이 가능한 사회’로 만들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대화나 토론이 모자란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면 힘으로 풀려고 하는데, 그 때문에 사회 갈등이 일어나곤 한다. 논술을 가르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에 살도록 이끌고 싶은 것이다.

2. 무엇이 잘못되었나?

하지만 돌아가는 꼴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지금 온 나라에 논술 바람이 몰아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없다. 우리 학생들에게 논술이 왜 필요하며, 우리 학생들이 논술을 배워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논술 시험에서 그럴듯한 답안을 써 내고, 그래서 더 좋은 대학에 가도록 하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해 온 나라에 불어 닥친 논술 바람의 본 모습은 ‘논술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논술고사를 잘 봐서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학교에서 그것을 가르치지 말자는 이야기도 아니다. 다만 그것이 논술의 본질이 될 수는 없음을 강조한 말이다. 논술을 나무에 빗대어 말한다면, 뿌리와 줄기는 아이들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길러주는 일이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은 꽃 가운데 한 송이, 또는 열매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뿌리와 줄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꽃이나 열매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거의 비슷하다.

첫째, 온 나라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그렇다. 그네들은 ‘논술’보다는 ‘시험’에만 관심이 있으며,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더 영험(?)한 학원을 찾아서 순례를 하곤 한다.

둘째, 논술 바람을 타고 한몫을 잡으려는 학원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어느 논술학원의 원장은 ‘우리나라 논술 교육의 99%는 잘못되었다’라며 책까지 내서 학원과 학교의 논술 교육을 낱날이 파헤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사교육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학원의 원장이 스스로 나서서 사교육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놀라웠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우리나라 논술 교육의 99%가 잘못되었다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 학원은 그렇지 않으니, 우리 학원으로 오라’라는 광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

셋째, 논술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기로는 공교육의 교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얼마 전 전교조의 한 지회에서 ‘참교육 실천 보고회’가 열렸다. 온 나라를 휩쓸고 있는 논술 바람은 이곳도 비껴가지 않았다. 그날의 주제는 논술이었고, 모두 여섯 명의 전교조 교사가 자기 학교의 논술 지도 사례를 발표했다. 그런데 한 학교만 빼고는 ‘소수 정예를 위한 논술 보충 수업 사례’를 내놓았다. 어떤 학교에서는 교육청으로부터 천만 원을 지원받아 상위권 학생 15명을 데리고 일 년 동안 독서 논술을 지도한 사례를 내놓았고, 또 어떤 학교에서는 교육청으로부터 억 대가 넘는 지원금을 받아서 최상위권 학생들 몇 명을 데리고 논술 시범학교를 운영한 사례를 내놓았다. 신문을 가지고 논술을 지도한 사례도 몇몇 학생만 데리고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런 것을 ‘참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으니, 참으로 낮간지러운 일이다.

넷째,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 신문과 방송을 보노라면 논술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는 날이 거의 없다. 하지만 그 속에도 잘못이 많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문제점을 날카롭게 꼬집어 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가리켜야 한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부풀리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다섯째, 온 나라의 학생과 학부모, 사교육, 학교 현장, 언론이 그런 상황이라면,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어떻게? 혹시 아이들의 사고력이나 표현력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더 우수한 학생들을 뽑을까?’ 하는 일에만 눈독을 들이고 계시지는 않으리라 믿는다.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뽑아서 제대로 가르치겠다는 생각보다, 이미 학원과 학교에서 만들어 놓

은 학생들을 뽑아서 손쉽게 가르치겠다는 생각을 하시진 않으리라 믿는다.

3. 왜 이렇게 잘못되었나?

일이 이렇게까지 꼬인 까닭이 무엇일까? 학부모, 학원, 교사, 언론, 교수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¹⁾ 잘못이 없다면 그건 학생들이다. 어른들은 ‘요즘 아이들은 생각이 없어, 책을 읽지 않아, 글을 쓰지 않아’라며 아이들을 탓한다. 하지만 생각해 보자. 누가 우리 학생들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바로 어른들이다. 어른들이 가해자요 학생들이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역정을 내고 있는 꼴이다.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을 가운데 두고, 어른들은 그들이 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논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논술을 배움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그네들이 살아갈 앞날이 어떤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어른들이 저마다 스스로 가운데 자리를 잡고, 학생들을 둘러리로 세웠다. 일이 이렇게 되니 학생들은 더 힘들고 더 괴롭다. 지금 우리나라의 논술을 가장 나쁘게 말한다면 ‘어른들이 저마다 스스로의 알팍한 잇속을 챙기느라 자라나는 학생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는 꼴’이라고 할 수 있다.

1)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누구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열쇠를 쥐고 있는 쪽은 대학이다. 대학에서 열쇠로 손쉽게 딸 수 있는 그 문을 열려면, 다른 이들은 온몸을 던져야 한다. 몸을 던지는 일이 두렵지는 않다. 다만 그러는 동안 우리 학생들이 다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 괴로울 뿐이다. 모든 대학에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Ⅲ. 논술을 가르치는 바른 길 찾기

1.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 ⇒ 생각하는 힘을

어떤 이는 논술이 글쓰기와 비슷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논술문을 제대로 쓰려면 서론, 본론, 결론 따위를 잘 알아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논술에 대비하려면 국어과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글쓰기 전략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

또 어떤 이는 배경지식이 많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논술을 가르치기에 앞서 먼저 인문, 사회, 과학의 배경지식을 넉넉히 가르쳐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논술은 사회(윤리)나 과학과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논리와 논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도 있다. 그래서 논술을 가르치려면 먼저 기초 논리학을 가르쳐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논술은 철학이나 논리학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가르쳐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러나 이런 요소들은 가장 기초만 알면 된다. 글쓰기는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맞추고, 내용에 따라 문단을 나눌 수 있는 정도면 된다. 배경지식은 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활용하면 된다. 국어, 사회, 윤리, 과학 시간에 배운 지식으로도 넉넉히 논술문을 쓸 수 있다는 뜻이다. 논리학은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그에 대한 근거를 내세우라는 것, 조금 더 나간다면 상대가 내세울 수 있는 반론을 예상하고 그에 대해 재반박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어렵게 접근하면 오히려 학생들을 주눅 들게 만들 뿐이다.

그런데도 학교 현장에서는 글쓰기 전략, 배경 지식, 논리논증 따위를 너무 깊이 가르친다. 교사들이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배웠음직한 전략과 지식을 학생들에게 쏟아내는 일도 많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학생들을 가운데 두지 않고 교사가 스스로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이

다.²⁾ 학생들이 논술문을 제대로 쓰려면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그것을 깊숙하게 가르쳐 버린다.

논술을 가르치는 교사는 스스로를 버려야 한다.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라며 우쭐대는 마음도 버려야 하고, 학생들 앞에서 으스대려는 마음도 버려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을 마음 한 가운데에 두어야 한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가르쳐야 한다. 지나치면 안 된다.

논술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힘’이다.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깊고 넓고 높게 생각해서 그것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생각하는 힘은 쉽게 기를 수 없다. 특별한 과목에서, 특별한 교사가, 특별한 몇 시간에 가르쳐서는 될 일이 아니다. 모든 교과에서, 모든 교사가, 모든 시간에 가르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힘을 더해야 한다.

2. 언제 가르쳐야 하나? ⇒ 정규수업에서

논술을 정규 교과에서 가르쳐야 하는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지나친 사교육 팽창을 막고 공교육을 되살릴 수 있다. 둘째, 지도 시간을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으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셋째,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논술 지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논술 교육의 상업화를 억제하여 경제력에 상관없이 논술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부끄러운 이야기

2) 좀 다른 이야기지만, 국어과 교육과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영역 구분’ 논쟁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새로 고친 교육과정에서도 이 매듭을 깔끔하게 풀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덮어 버렸다.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은 배우는 이를 가운데 놓지 않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그들이 온 삶을 바쳐서 파고들었던 학문 분야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한 나머지,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배우는 학생들이 아니라 연구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만든다 보니, 이런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 학생들과 함께 살아가는 현장 교사가 보기에 무척 안타깝다.

지만 공교육의 교사들도 논술을 새로운 돈벌이로 여기는 일이 많다. 한번 수업에 10만원 안팎의 수당을 받으니, 그런 생각을 할만도 하다. 그러면서도 교사들은 ‘사교육보다는 비싸지 않다’라며 스스로를 감싸고돈다. 이제 돈이 없는 학생들은 학원에서는 물론 학교에서도 논술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교사들이 아무런 보상도 없이 밤늦게까지 남아서 수업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정규수업에 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이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배우는 학생들이나 서로 부담이 없다.

정규 수업에서 가르치는 논술은 아래의 표를 바탕으로 한다.

단계 \ 방법		방법			
		방법1	방법2	방법3	방법4
1단계	들어가기 (동기유발)	발문의 기법	관련자료 제시	사례 발표	교사의 경험담
2단계	문제 확인 (논제파악)	토론 기법	발표 기법	강의식 수업	마인드맵
3단계	제시문 분석 (논점잡기)	토론 기법	발표 기법	질의 및 응답	청문회 기법
4단계	요약하기	논제 파악	논증구조 고려	글의 전개 방식을 고려 비교-대조, 분석, 서사 등	
5단계	글감 찾기 (자료수집)	토론 기법	과제 제시	브레인 스토밍	마인드맵
6단계	개요 작성	논제 파악	논증구조 고려	마인드맵	3단 구성, 문단나누기
7단계	논술문 쓰기	문장 쓰기 (문장 호응)	문단 쓰기 (문단 구성)	원고지 사용법	논술문 작성법
8단계	퇴고 및 첨삭	퇴고 (본인 첨삭)	상호 첨삭 (친구끼리)	교사 첨삭 (간단하게)	집단 첨삭 실물화상기
9단계	평가 및 반성	자기 평가 (느낌 말하기)	상호 평가 (친구들과)	교사 평가 (칭찬, 격려)	집단 평가

<표1> 정규수업에서 논술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

이 표는 정확한 것이 아니며, 다만 하나의 보기일 뿐이다. 다시 말해

논술 지도에 정말로 1단계부터 9단계가 있는가? 각 단계의 차례가 맞는가? 각각의 단계에 4가지 방법을 들고 있는데 이런 방법밖에 없는가?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는가? 따위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힘주어 말하려는 것은 이렇다. 논술 지도에는 여러 단계가 있고, 각각의 단계에는 그것을 지도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알맞은 단계와 방법을 골라서 수업 시간에 쓰면 된다. 것처럼 논술식 수업의 여러 단계와 방법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표1>이다.

이전까지는 교과서만 놓고 수업을 구상했다면, 이제부터는 <표1>을 옆에 두고 함께 고려하라는 뜻이다. ‘이번 단원을 수업할 때 <표1>의 논술식 수업 방법 가운데 어떤 것을 활용해 볼까?’ 한 번 더 생각하라는 뜻이다. 모든 시간에 논술식 수업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더 늘려나가자고 제안한다.

3.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 여러 교과가 힘을 모아서

요즘은 논술을 넘어 ‘통합 논술’이 큰 흐름을 이루고 있다. 통합 논술이라고 할 때 ‘통합’의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내용의 통합이요, 다른 하나는 방법의 통합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합’이라고 하면 ‘내용의 통합’을 생각한다. 하나의 논제를 두고 여러 교과와 선생님들이 함께 가르치는 ‘팀티칭’이 가장 일반적이다. 서울에는 이것을 잘 하는 학교가 있다. 언론에서는 ‘공교육의 희망’이라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은 공교육의 희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방식은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교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소수 정예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분들을 낮잡아 보려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바른 길을 찾아보자는 뜻이다. 그분들의 헌신, 열정, 능력을 참으

로 높게 평가한다. 그분들의 헌신, 열정, 능력이 모자라서 공교육의 희망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다시 말해서 논술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에게 그런 헌신, 열정, 능력을 두루 갖추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정말로 ‘공교육의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모든 선생님들이 손쉽게 따라서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혜택이 모든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옳다.

그래서 ‘방법의 통합’을 제안한다. <표1>의 논술식 수업 방법은 특정한 교과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많은 교과와 선생님들께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국어든, 사회든, 수학이든, 미술이든, 음악이든, 체육이든 <표1>에서 제안한 논술식 수업 방법을 쓸 수 있다.

이처럼 모든 과목에서 논술식 수업을 한다면 학생들은 과목, 주제,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달라도 비슷한 활동을 하면서 논술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 이런 형태의 수업이 여러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2~3년 동안 이어진다면 학생들의 논술 능력이 크게 자랄 수 있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논술 시험에 대비한 실전 강의를 한다면, 배우는 학생들이나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한결 수월할 것이다.

4. 누가 가르쳐야 하나? ⇒ 모두가

1) 누구나 할 수 있다

논술은 모든 교과에서, 모든 교사가, 모든 시간에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이 말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특별한 교과가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가르칠 수 있고, 특별하게 훈련된 몇 명의 교사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가르칠 수 있으며, 특별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몇 시간만이 아니라 어떤 시간에서라도 가르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렇게 수업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논술의 세례를 받아서 흠뻑

젖어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교실 수업이 조금씩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논술은 여전히 학생, 학부모, 교사를 괴롭히는 괴물로 남을 것이다. 논술 지도에 있어서만큼은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씩이 훨씬 큰 의미가 있다.

2) 수준에 맞아야 한다

물론 모든 교사들이 같은 수준과 방법으로 논술 수업을 할 수는 없다. 논술식 수업의 수준과 방법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교과목과 단원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각각의 교과목은 추구하는 목표가 있으며, 각각의 단원 또한 교육과정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단계와 방법을 골라야 한다. 정규수업에 논술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수업과 논술 가운데 더 무게를 뒤편을 쪽은 수업이다. 수업을 제대로 하려고 논술을 활용해야지, 논술을 가르치려고 수업을 비틀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수업이 먼저이다.

둘째, 교사의 능력과 관심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교사는 토론을 잘 이끌 수 있고, 어떤 교사는 마인드맵에 소질이 있을 수 있다. 교사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법을 억지로 하려하지 말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단계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배우는 학생들의 수준과 필요이다. 1학년과 3학년, 논술을 배운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단계와 방법이 달라야 한다. 학생들을 마음 가운데 두지 않으면 제대로 된 논술식 수업을 구상할 수 없다.

3) 쉬워야 한다

<표1>에서 제안한 논술식 수업 방법도 특별하거나 어렵지 않다. 이미 많은 선생님들이 쓰고 있으며, 누구라도 마음만 먹는다면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능력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문제이다. 이밖에도 쉽게 가르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첫 번째 보기로 ‘질문 숙제’가 있다.³⁾ 교사는 학생들에게 소크라테스 질문 목록⁴⁾을 주고, 수업 시간마다 하나를 골라서 숙제로 낸다.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그 질문을 던지고 그 때의 상황, 질문을 받은 상대의 반응, 자신의 느낌 따위를 적어서 내도록 하는 숙제이다.

학생들이 토론을 못하는 까닭은 말을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대로 듣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토론을 하려면 우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반응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자기 할 말을 생각하느라 상대방의 얘기를 제대로 듣지를 못한다. 그러다보니 서로 말은 오고가지만 걸돌기 일쑤이다. 말을 하기에 앞서 먼저 제대로 들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논술을 못하는 까닭은 쓰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대로 읽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출제 의도를 찾아내려면 문제와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고, 그 둘을 엮어서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제시문 앞부분을 읽다가 뭔가 하나 걸려들었다 싶으면 그것을 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머지 제시문을 제대로 읽지를 못한다. 글을 쓰기에 앞서 먼저 제대로 읽어야 한다.

토론을 못하는 까닭은 듣지 못하기 때문이고, 논술을 못하는 까닭은 읽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질문을 해야 한다. 학생들은 논술 제시문을 읽을 때나, 토론에서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때나 묻지 않는다. 물음이 없는 읽기는 쓸거리가 없는 논술로 이어지고, 물음이 없는 듣기는 말할거리가 없는 토론으로 이어진다. 논술이나 토론의 바탕은 학생 스스로 묻도록 이끄는 일이다.

3) 상명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의 권희정 선생님이 쓰는 방법이다.

4)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을 정리한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예를 들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그것이 이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그에 대한 반론은 없나요?” 따위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숙제를 하면서 질문을 생활화하면 토론이나 논술에서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 토론에서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는 ‘그 말이 무슨 뜻인가요? 전제가 무엇인가요? 반론은 없습니까? 실현 가능합니까?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따위를 물으며 들을 수 있다. 논술에서 제 시문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야 토론이나 논술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질문 숙제를 위해서 교사가 큰 노력을 들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매우 크다. 쉽게 가르치고 크게 배우는 길이다.

더 쉬운 보기로 ‘두 문장 이상으로 말하기’를 들 수 있다.⁵⁾ 다음은 요즘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화 상황이다.

학생 : 선생님!	담임 : 왜?
학생 : 조퇴요.	담임 : 왜?
학생 : 아파요.	담임 : 어디가?
학생 : 배요.	담임 : 약은?
학생 : 먹었어요.	담임 : 집에 가.

요즘 아이들이 이렇다. 긴 글을 읽는 일을 힘들어하고, 길게 말하기를 어려워한다. 심지어 위의 보기처럼 두 낱말 넘게 말하기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많다. 다시 말해서 두 낱말 넘게 생각하기를 싫어한다는 뜻이다. 이런 아이들에게 2000자 가까운 논술문을 쓰라니, 말이 좋아 논술이지 그것은 고문에 가깝다.

그래서 남광현 교사는 학생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두 문장 이상으로 말하도록 한다. 그 선생님 앞에서라면 위의 학생은 “선생님, 제가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조퇴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결론과 전제의 관계를 갖춘 논증 구조인 셈이다.

그 선생님은 기출 문제를 다루지는 않는다. 하지만 학생들이 생활 속

5) 경희고등학교 남광현 선생님이 쓰는 방법이다.

에서 스스로의 생각과 말을 가꿀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이런 분이 정말로 훌륭한 논술 선생님이다. 우수한 몇몇 학생들을 모아 놓고 상위권 대학의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잘 가르치는 선생님보다는,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두 문장 이상으로 말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려고 늘 노력하는 이런 선생님이야말로 참 논술 선생님이다.

논술을 어렵고 거창하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먼저 두 문장 이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힘부터 길러주어야 한다. 물론 이밖에도 더 많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학생들이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모든 교과에서 힘을 모아서 가르쳐야 한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학생들의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다. 이런 힘이 있어야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고, 더 나아가 입시 논술도 준비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힘을 길러줄 생각은 하지 않고, 기출 문제부터 분석하려 든다.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논술 수업을 할 수가 없다.

IV. 정규 수업을 활용한 논술 지도 사례

1. 수업 구상

1) 관련 단원 :

국어 (하) 6. 표현과 비평 (2) 외국인의 눈에 비친 19세기 말의 한국

2) 학습 목표 :

논제에 대해 마인드맵을 펼치고, 개요로 정리하기

3) 학습자 분석:

고등학교 1학년, 논술과 개요를 처음 접하는 수준

4) 수업 전략:

바탕글이 백여 년 전의 자료이므로, 글쓴이가 지적인 문화 현상에 대해서 학생들이 스스로의 관점에서 비판을 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빨리빨리 문화’에 적용하여 학생들이 스스로의 관점에서 문화 현상을 바라보고, 그에 대해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비판을 해 보도록 한다.

그런 생각을 마인드맵으로 펼치고, 그것을 정리해서 개요로 만들도록 이끈다.

학습자가 고등학교 1학년으로서, 논술과 개요를 처음 접한다. 따라서 차근차근 밑돌을 놓아서 이끌어 준다.

2. 수업 전개

단 계		수업 활동	수업 과 정
1단계	준비 학습	요약하기	1. 상반된 관점의 제시문 읽기 2. 제시문 요약하기 3. 자신의 입장 정하기
2단계	본시 학습 I	마인드맵 및 개요 작성	4. 화제 내면화 5. 마인드맵 6. 개요 만들기 7. 개요 발표하기
3단계	본시 학습 II	교과서 내용 파악 및 개요 작성	8. 논제 및 논점 잡기 9. 마인드맵 10. 개요 만들기
4단계	수행 평가	논술문 쓰기 및 평가	11. 논술문 쓰기 12. 평가표 작성 13. 교사의 총평

1) 상반된 관점의 제시문 읽기

외국인이 쓴 글 가운데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두 제시문을 주고 읽어오도록 한다. 본격적인 학습이 아니라 준비 학습이기 때문에, 너무 길고 어려운 제시문으로 학생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

2) 자신의 입장 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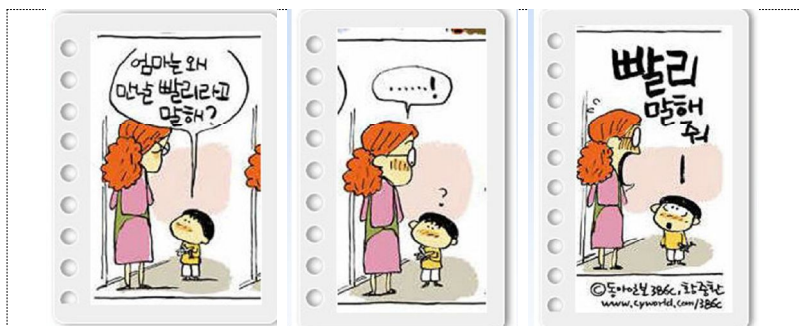
제시문을 읽고 요약할 하면서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한다.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정하고, 그 근거까지 생각해 본다.

3) 화제 내면화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거창한 화제나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 학생들의 진정성을 이끌어 내려면 그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 논술 수업의 승패는 ‘화제 내면화’ 과정에서 판가름이 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 내고, 화제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활동을 준비했다.

첫째는 ‘빨리’라는 만화다. 어린 아이의 시각에서 빨리빨리 문화를 다루고 있는데, 이런 만화를 보여줌으로써 주어진 논제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는 자신감을 갖도록 이끌 수 있다.





둘째는 자기 점검이다. 빨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주고, 자기는 몇 가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하나에 10점씩, 100점 만점이다. 하나의 항목을 한 화면으로 구성해서 차례로 보여주는 것이 좋다. 하나씩 새로운 항목이 소개될 때마다 학생들의 웃음과 손뼉이 터져 나온다. 흥미를 유발하려는 자료이므로, 가능하면 밝고 가벼운 분위기에서 마음껏 즐기도록 이끌어야 한다.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인의 빨리빨리

강준만, 『한국인 코드』 中

- ① 자판기 컵이 나오는 곳에 손을 넣고 기다린다.
- ②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와 추격전을 벌인다.
- ③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지퍼를 내린다.
- ④ 삼겹살이 익기도 전에 먹는다.
- 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닫힘 버튼을 누른다.
- ⑥ 3분 컵라면을 3분도 안 되어 열고 먹는다.
- ⑦ 자막이 끝나기 전에 영화관에서 나간다.
- ⑧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면서 양치질을 한다.
- ⑨ 웹사이트가 3초 안에 안 열리면 닫아버린다.
- ⑩ 편의점 등에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계산한다.

열 가지 항목이 다 나오면 학생들에게 묻기에 앞서 교사가 먼저 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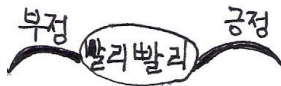
점수를 고백하는 것이 좋다. “나도 성격이 참 급한가 봐요 난 70점이네요 여러분은 몇 점인가요?” 그러면 아이들도 자랑스럽게 외친다. “저는 90점 이요!” “저는 100점이요!” 그때 교사는 이렇게 정리를 해 줄 수 있다. “평균이 80점은 넘을 것 같네요 그리고 보니 우리 모두 성격이 매우 급합니다. 이처럼 빨리빨리 문화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인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얘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제 내면화 과정이다.

4) 마인드맵

마인드맵 기법을 활용하여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자유 연상을 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발표하는 내용을 교사는 순발력 있게 판서하되, 마인드맵의 형태로 그린다. 학생들은 의도가 없이 발표를 하지만, 교사는 의도를 가지고 정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수업을 듣는 대상이 논술문 쓰기와 개요 만들기의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사가 의도를 가지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빨리빨리 문화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앞 시간에 긍정/부정의 제시문을 주고 읽어 오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생들은 교사가 미리 깔아놓은 밑돌을 따라 움직이기 마련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의 생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차근차근 밑돌을 놓아야 한다.

학생들은 긍정과 부정을 뒤섞어서 마구잡이로 발표하지만, 교사는 ‘뭉음’과 ‘맞섬’을 고려하여 정리를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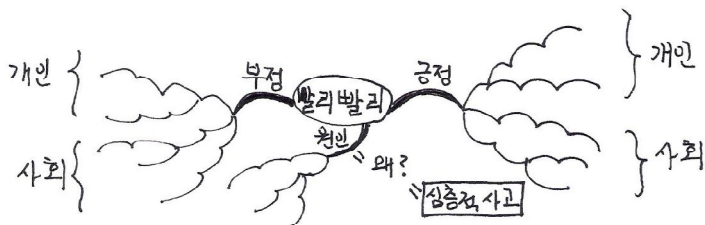


한 가지 더 의도를 가진다면, 학생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개인의 문제

와 사회의 문제로 묶어서 정리할 수 있다.



긍정과 부정에 대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새로운 항목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던지시 이끌어 내야 한다. “지금까지 빠리빨리 문화에 대해서 밝은 쪽과 어두운 쪽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밝고 어두운 것은 현재의 모습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빠리빨리 문화가 왜 생겨났을까요?”라고 묻는다.



원인은 과거의 일이며, 그것은 ‘왜?’라는 물음과 함께 한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이 ‘왜?’라는 물음 속으로 파고들도록 끊임없이 자극해야 한다. 한두 번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며, 뿌리를 뽑아야 한다. 보기를 들자면 이런 식이다.

교사 : 왜 우리나라에 빠리빨리 문화가 생겼을까요?

학생 : 경쟁이 심했어요.

교사 : 왜 경쟁이 심했을까요?

학생 : 가난했어요.

교사 : 왜 가난했을까요?

학생 : 땅덩어리가 좁고, 인구가 많았어요.

교사 : 땅덩어리가 좁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학생 : 반도라서 땅덩어리가 좁았습니다.

이처럼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그러면 빨리빨리 문화 현상과 반도라는 지리 환경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창의적인 논술을 쓸 수 있는 힘이다.

원인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면, 다시 한 번 ‘맞섬’의 개념을 활용한다.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빨리빨리 문화가 생겨난 원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까지만 얘기해도 학생들의 머리는 이미 ‘결과’를 생각하고 있다.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이 바로 ‘맞섬’의 원리이다.

원인은 과거의 일이며, ‘왜?’를 캐 들어가는 심층적 사고라고 했다. 그에 견주어 결과는 미래의 일이며, ‘어떻게?’를 파고드는 문제 해결식 사고라 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논술문을 쓰라고 하면 결론은 대부분 ‘의식 개조’로 끝난다. 생각을 끝까지 펼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와 마찬가지로 ‘어떻게?’도 한두 단계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파고들어야 한다. 그래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나온다. 다음을 보자.

교사 : 빨리빨리 문화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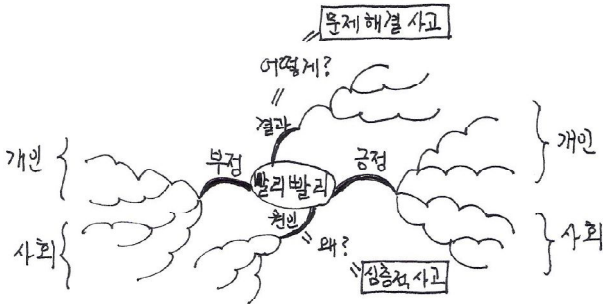
학생 : 국민 의식을 개조해야 합니다.

교사 : 어떻게 개조할 건가요?

학생 : 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사 : 어떻게 교육할 건가요? 대상은? 내용은? 주체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음과 같은 마인드맵을 완성할 수 있다.



5) 개요 만들기

칠판에 그려 놓은 마인드맵을 보면서 논술문을 쓰기 위한 글감을 폭넓게 찾아낼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입장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골라낸다. 개요를 만들 때는 논증의 구조를 갖추도록 한다. 자신의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연결해서 논리를 갖춰야 한다. 그와 더불어 예상되는 반론과 그에 대한 재반박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한다.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개요를 처음 접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친절하고 자세한 개요표를 주는 것이 좋다. 물론 개요 작성에 익숙한 학생이라면 빈 종이를 주는 것이 좋다.

개요 만들기

논제	
나의 입장	
본론	1. 완전한 문장으로 쓴다. ▪ 근거와 이유, 부연 설명 따위를 기록 ▪
근거 (논거)	2. ▪ ▪
예상되는 반론과 재반박	3. ▪ ▪
결론	
서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다음과 같은 개요를 만들 수 있다. 틀에 박혔다는 느낌도 들지만, 개요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 개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에는 모자람이 없다. 이것은 빨리빨리 문화를 어둡게 보는 입장이다.

[서론] 빨리빨리 문화의 원인 -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이다. 그래서 이리 이리하고 저러저러하고, 더 나아가 빨리빨리 문화가 생겨나게 되었다.

[본론1] 개인의 문제점 - 빨리빨리 문화는 개인의 몸과 마음을 파괴한다. 첫째 이렇고, 둘째 저렇고, 셋째 그렇다.

[본론2] 사회의 문제점 - 또한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첫째 이렇고, 둘째 저렇고, 셋째 그렇다.

[본론3]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 - 물론,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서 밝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까닭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런 점을 생각하지 못한 주장이라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론] 해결책 - 이런 빨리빨리 문화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이리저리러 쿵 해야 한다.

6) 개요 발표하기

학생들이 개요를 만드는 동안 교사는 교실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을 도와주는 한편, 발표할 학생을 고른다. 좋은 개요나 나쁜 개요는 나름대로 교육적 의미가 있다. 따라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골고루 고른다.

학생들이 작성한 개요를 실물화상기에 올려놓고 발표하면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학생이 작성한 개요는 스스로 발표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교사가 대신 발표를 할 수도 있다. 학생들이 나왔다 들어가는 시간, 뜬 들이는 시간 따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발표를 할 때 개요 하나를 완전히 보여줄 필요는 없다. 또 좋은 개요와 나쁜 개요의 비율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 몇 개의 개요에서 서론만 건주어 볼 수도 있고, 상반되는 개요를 맞대면서 볼 수도 있다. 교사는 연극

의 연출가처럼 개요들의 등퇴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학생들이 개요를 만드는 동안 교사는 교실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학생들이 작성하는 개요를 살펴야 하며, 발표의 순서를 잘 데모해 두어야 한다. 다음과 같이 상반되는 개요를 짝 지어 보여주고, 어떤 개요가 더 나은지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 자기 입장에 대한 근거를 차례 없이 늘어놓은 것
- { 근거를 개인과 사회의 문제로 나눠서 정리한 것
- { 자기 입장에 대한 근거만 들고 있는 것
- { 자기 입장에 대한 반론을 예상하고 반박하고 있는 것
- { 그저 그런 밋밋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서론
- { 읽는 사람의 흥미를 잡아끌 수 있는 서론
- { 두루뭉술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결론
- {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결론

7~9) 교과서 바탕글에 적용

제7차 교육과정(국어과)에서는 정규 수업 시간에 교과서 본문을 다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문은 학생들이 집에서 읽어 오고, 교실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되어 있다. 그 원칙에 충실하여 교과서 본문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고 학생들이 집에서 읽어오도록 한다. 교과서 본문을 읽어오지 않으면 수업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여, 반드시 읽어오도록 한다.

교과서를 읽어왔다고 전제하고, 교실에서는 마인드맵과 개요 만들기를 연습한다. 학생들이 교과서 본문을 읽고, 상반된 입장이 충돌할 수 있는 논제를 스스로 찾아낸다. 다시 말해, 하나의 문화 현상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부딪힐만한 부분을 골라낸다. 그 논제와 관련하여 자기 입장을 정하는데, 찬성과 반대 가운데 하나를 택한다. 그리고 앞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스스로 마인드맵을 펼치고 개요를 만들도록 이끈다.

국어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수업을 몇 번 하게 되면 학생들은 개요를 만드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⁶⁾ 하지만 문제는 누가 생각을 더 넓고 깊고 높게 펼치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몇 시간의 수업으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논술의 바탕을 다지는 일을 꾸준히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논술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다.

V. 맺는 말

요즘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논술은 블랙홀과 같다. 논술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집어삼키고 있기 때문이다. 논술보다는 수업이 먼저이고, 수업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은 소통(믿음)의 문제이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얘기를 꺼낼 수가 없다. 어디를 가나 논술 바람만 불고 있기 때문이다.

논술은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논술을 준비하는 일도 거창하고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논술의 뿌리와 줄기를 돌보는 일은 정규 수업을 바로 세우는 일에서 비롯된다. 정규 수업은 주입-암기식 틀을 벗어버리지 못하면서, 따로 학생들을 불러 모아 논술 수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수업과 논술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필자의 경험을 밝히고자 한다. 2003학년도⁷⁾에 고등학교 2학년 독서(5단위)를 가르치면서, 활동 중심 수업으로 목표를 세웠다. 다양한 활동을 했기에 수행평가 점수가 70%였고, 지필고사는 30%였다. 입시를 코앞에

6) 요약이든 논증이든, 이렇게 정규 수업 시간에 논술의 바탕을 단단히 다져놓아야 한다. 그래야 논술의 뿌리와 줄기를 튼튼히 하고, 더 나아가 아름다운 꽃과 달콤한 열매도 바라볼 수 있다.

7) 그 이후에는 졸업 고3 답임을 했기에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힘들었다.

둔 고등학교 2학년, 그것도 문과 학생들에게 5단위 국어 수업의 중요성과 비중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 과목에서 수행평가 70%는 모험에 가까웠다. 그만큼 활동에 많은 비중을 두었던 것이다.

그와 함께 제1학기와 제2학기 수업의 중점을 잡았다. 각각 ‘쓰기’와 ‘읽기’였다. 주당 5시간의 수업 가운데 4시간은 자잘한 읽기 활동을 하고, 나머지 1시간을 잡아서 중점 수업을 했던 것이다.

제1학기에는 학생들과 ‘4000자 논술 쓰기’에 도전했다. 학생들과 함께 마인드맵, 개요 만들기, 문장 쓰기, 문단 쓰기 따위를 차근차근 배웠다. 그리고 처음에는 800자에서 시작해서 길이를 늘려나갔다. 학기를 마칠 때는 모든 학생들이 4000자 논술문을 쓰고, 그것으로 대회에 출품하여 많은 학생들이 상을 받기도 했다.

제2학기에는 ‘저자 만나기’에 도전했다. 5명씩 모둠을 만들고, 같은 책을 골라서 읽었다. 그리고 각자 A4에 5쪽씩 서평을 써서 모으니 25쪽이 되었다. 그것을 저자에게 보내면서 ‘선생님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궁금하여 만나 뵙고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라며 편지를 쓰도록 했다. 한 학기 동안 공을 들여서 준비를 해서인지 학생들은 구성애, 김진경, 박시백, 박원순, 박재동, 신영복, 유홍준, 정재승, 주강현, 최일도, 한대수, 한홍구, 홍세화, 황석영과 같은 쟁쟁한 거물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읽기 활동을 하고, 4000자 논술 쓰기를 연습하고, 책을 깊이 읽고 저자와 면담까지 한 경험을 가진 학생들을 데리고 3학년으로 올라갔다. 그들에게는 논술을 가르치는 일은 그리 어려운 것이 없었다.

논술에 대비하려고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정규 수업을 바로 세우는 일이 앞서야 한다. 기출 문제를 가르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 잘 하기 위해서라도 정규 수업을 바로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정규 수업 시간에 논술의 바탕을 다지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 주어야 한다.*8)

* 본 논문은 2007. 6. 14. 투고되었으며, 2007. 7. 9. 심사가 시작되어 2007. 7. 25. 심사가 종료되었음.

<초록>

정규교과에서 통합논술 가르치기

최인영

누구라도 인정하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논술은 몹시 뒤틀리고 삐뚤어져 있다. 그렇게 된 까닭은 학생들을 가운데 두지 않고 둘러리로 세웠기 때문이다. 어른들이 가운데를 차지하고 앉아서 스스로의 잇속을 챙기려고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중심 놓고 생각하지 않으면 논술을 둘러싼 문제를 풀 수가 없다.

논술을 가르치는 목적은 네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이 더 넓고 깊고 높게 생각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려는 것이다. 둘째, 그 생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힘을 갖추주려는 것이다. 셋째, 자라나는 학생들을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으로 키우려는 것이다. 넷째,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앞날을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사회로 만들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논술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오로지 입시에 대한 관심뿐이다. 그렇게 해서는 논술의 본질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입시 자체도 제대로 대비할 수가 없다. 논술을 가르치는 바른 길을 찾아야 한다.

논술은 정규 수업을 바로 세우는 일에서부터 비롯된다. 주입-암기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이끌어 내고, 그 속에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 주어야 한다. 그런 힘이 있어야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고, 더 나아가 입시 논술에 대비하는 힘도 생긴다.

【핵심어】 논술, 통합논술, 정규교과, 정규수업, 생각하는 힘, 논술식 수업, 마인드맵, 개요

<Abstract>

Teaching Integrated Essay-writing in Regular Classes

Choi, In-young

As all of you might agree, teaching essay-writing in Korea seems to be greatly distorted and biased. What should be responsible for this is we have put students not in the center but in the fringes and that grown-ups only try to pursue their own benefit. Without positioning students in the heart of the matter there would be no possible solution as far as teaching essay-writing is concerned.

Four purpose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we teach essay-writing to students. First, students should be encouraged to have a wider, deeper, higher thinking capacity. Second, they should be given the power to show their thoughts off to people. Third, they should be educated to successfully communicate with others. Fourth, our society should proceed to be the one in which the students can enjoy dialogues and debates.

Unfortunately, however, the above mentioned statements are at present out of concern in this country. Everyone is only interested in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which will not only leave us far from the nature of essay-writing but also from appropriate preparation for the college entrance itself. We should, therefore, seek the right way to teach essay-writing.

The essence of teaching essay-writing lies in making our regular classes assume upright stance. We should facilitate a variety of students' activities instead of making them cram and memorize a massive amount of knowledge, and in the meantime students would develop their power of thinking. With this power they would grow to be a successful communicator.

and, on top of that, to get themselves ready for essay-writing for college entrance.

[Key words] essay-writing, integrated essay-writing, regular curriculum, regular class, thinking power, essay-writing based class, mind-map, synopsis

【토론문】

〈정규 교과에서 통합 논술 가르치기〉에 대한 토론문

박영민(한국교원대학교)

논술이 대학 입학 전형의 한 방법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논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교육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 있다. 출판 시장을 논술 교재가 주도하고 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많은 논술 관련 도서와 자료가 발행되고 있으며, 여러 교사 연수 및 교사 연구 모임에서도 논술이 중심적인 주제를 차지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많은 광고도 논술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예는 논술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전국 규모의 국어교육학회에서 논술을 학술 대회의 주제로 삼은 것도 논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교육적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교육에서 통합 논술을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발표자의 논의를 접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발표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논술은 사교육이 절대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형국인데, 이 실천적인 논문에서는 논술은 공교육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며 학교 교육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발표 논문에서는 공교육에서 논술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실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어 논술 교육의 현실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학교 논술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실상과 문제, 학교 논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고민과 고충을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자가 주장하고 있는 논술 교육의 본질과 방법에 대해 몇 가지의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질문은 학교 논술 교

육의 실상을 무시한다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데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실천해야 한다는 의무와, 이 논문이 담고 있는 방향과 방법이 더 발전적으로 수정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1. 발표자는 ‘논술 시험’과 ‘논술’을 분리해서 사교육에서는 전자에, 공교육에서는 후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는 두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논술’과 ‘논술 시험’을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발표자는 학교에서는 생각하고 표현하는 힘을 기르는 ‘논술’을 가르치고, 사교육에서는 ‘논술 시험’을 치르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그렇게 단순하게 구분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비유컨대 ‘축구’와 ‘축구 시험’ 또는 ‘축구’와 ‘축구 경기’가 구분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 교육에서 논술을 가르치면서 논술 시험을 피해갈 수 있는 한 것인지, 사교육에서 논술 시험 기술을 가르칠 때 논술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교육적 행위에는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보면 학교의 논술 교육에도 시험, 즉 평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논술 시험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논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 “생각나무”의 일곱 째 원칙이 ‘이러한 바탕 위에서 논술 시험도 더 잘 준비할 수 있다.’로 설정된 것도 이러한 맥락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둘째, ‘논술’과 ‘논술 시험’을 분리했을 때 학생들에게 논술 쓰기의 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대체적으로, 아니 거의 모든 학생들이 글을 쓰는 것을 싫어한다. 국어교사도 글 쓰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니 학생들이 글쓰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여러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논술과 같은 논리적인 글은 성별 및 능력에 상관없이 회피 경향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논술 쓰기를 좋아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논술 쓰기를 동

기화해서 가르친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학생들이 그나마 논술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논술 시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논술 시험이라는 외적 동기에 자극을 받아 지루하고 힘든 논술 쓰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논술과 논술 시험을 분리했을 경우, 정말 논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을 기대할 수 있는가? 논술과 논술 시험을 분리해야 한다면 학생들의 논술문 쓰기에 대한 동기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생각나무”에서 구성한 통합 논술 교육의 방법(둘째 원리)은 구체적인 접근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정규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단계적 원리이므로 정규 수업에서의 특징이 드러나거나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점이 명확하지 않다. 정규 수업 시간에 적용하기 하기 위해서는 정규 수업의 구조나 특징 등과 논술 쓰기가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논술 지도의 단계 또는 논술 쓰기의 단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제시되어 있는 단계들은 정규 수업과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가 잘 드러나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단계로는 정규 수업 시간에 소화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한 꼭 정규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적용 가능한 단계들이라는 점에서 정규 수업에 활용하는 논술이라는 의미가 잘 살아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3. 발표자는 “생각나무”의 셋째 번 원리에서 ‘모든 교과서에서 통합해서 지도해야 한다.’고 하면서 ‘통합’을 ‘내용’의 통합이 아니라 ‘방법’의 통합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통합 논술이라고 할 때의 통합은 바로 내용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통합은 곧 교과 간의 통합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교과가 다루는 내용(지식, 정보 등)의 통합을 뜻하는 것이다. 방법의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 고민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방법은 여러 상황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을 구성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통합 논술의 통합은 내용의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것을 적절히 수정하는 방향을 취하고자 한다면 ‘내용’에 부합하는 ‘방법’의 통합을 제안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들은 하나의 방법을 그 효율성과 적합성을 고려하지도 않은 채 모든 상황에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내용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내용과 부합하는 방법의 통합을 고려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둘째 원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 1~4는 각각 어떠한 내용을 다룰 때 더 효율적이며 더 적합한지를 분석해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발표자는 “생각나무”의 다섯째 원리에서 ‘수준에 맞게 지도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학생들의 개별적인 수준을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이 요구된다. 국어과 수업 자체가 수준별 수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논술을 수준별로 지도하는 것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물론 발표자는 수준에 맞게 지도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당위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이렇게 지도된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발표자는 이 논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고 “생각나무”라는 교사 모임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 논리를 완성한 상태이므로 논술의 수준별 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설정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쩌면 토론자는 학교 논술 교육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미 논술 교육을 받고 진학한 학생들을 편하게 받아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논술 교육의 현실적인 문제와 상황에 대해 둔감한지도 모른다. 그래서 학교 논술 교육의 실천적인 성과를 담은 이러한 발표 논문에 대해 토론을 하는 것이 무척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발전적 논의를 위해 토론을 한다고 했지만, 이러한 언사가 혹시 학교의 실천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마음에서 지속적으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이

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우문(愚問)이 있다면 학교의 ‘진실’을 통해 일깨워주기 바란다. 발표자의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되어 더욱 발전적인 학교 논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